

# 혁신도시, 귀농·귀촌으로는 역부족 전남 인구 올들어 3개월 연속 감소

### 고령자 사망·전출이 주 원인 나주·광양·곡성·신안은 증가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귀농·귀촌 인기 등의 영향으로 점차 증가하던 전남내 거주 인구가 올 들어 3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 사망, 타 시·도 전출 등이 그 원인이었으며, 외부에서 유입된 인구의 상당수가 고령자로 파악됐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22개 시·군 가운데 나주, 광양, 곡성, 신안 등 4곳을 제외한 18곳의 인구가 모두 감소로 돌아섰다. 나주는 혁신도시 효과로 910명이, 곡성은 귀농·귀촌이 늘면서 276명의 인구가

유입됐다. 광양(139명)과 신안(38명)도 소폭이지만 주민이 늘었다. 반면 여수(-565명)를 시작으로, 장흥(-264명), 목포(-244명), 고흥(-138명) 등 18개 시·군에서 인구가 빠져나갔다. 하락 추세는 올 들어 계속되고 있다. 전남 인구는 지난달 946명에 이어 지난 1월 1560명, 2월 1000명 등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해 말 190만5780명이던 전남 인구는 지난달 190만2274명으로, 190만명 선도 위협받고 있다. 인구 감소는 타 시·도 전출이 1만942명으로, 전입(1만252명)보다 690명이, 사망이 1769명으로 출생(1419명)보다 많기 때문이다. 자녀 교육이나 일 자리를 찾아 외지로 이사가고, 고령화사회

에 진입해 사망자는 갈수록 늘지만 출산율은 이를 따라잡지 못하는 전형적인 인구 감소 구조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일을 할 수 있는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지역 미래를 이끌 유소년인구(0~14세)는 지난달 각각 641명과 874명이 줄었는데, 65세 이상 고령자는 569명이나 증가했다. 젊은층은 유출되고, 노령층이 유입 또는 자체 증가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전남도 관계자는 “학기 초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시·군에 자체적인 조사를 했는데, 학교 진학 문제로 타 시·도로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말했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 서구 을 보선 장외 공방전 뜨겁다

### 전현직 교수 111명 새정치 성토 전현직 시의원 35명 조영택 지지

4·29 광주 서구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놓고 장외 공방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특정 후보들에 대한 지지선언이 이어지고 있는가 하면 야권재편 등 호남정치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는 등 장외 선거전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광주지역 대학 전·현직 교수 7명은 2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호남 정치개혁을 소망하는 광주·전남지역 14개 대학 111명 교수·연구자’명의로 “호남정치를 개혁해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호남정치를 기득권 놀음으로 오염시킨 모든 정치인들의 퇴장을

정중히 요구한다”면서 “유권자를 대변하는 척하고 갑질하는 ‘무늬만 야당’, ‘물봉야당’ 기득권 정치인들에게 호남정치를 더 이상 맡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의 주장은 사실상 무소속 전정배 후보의 입장과 비슷하지만 “전 후보에 대한 반대 이유가 없지만, 모두가 전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광주시의원 15명은 이날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현직 35명의 명의로 새정치연합 조영택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조 후보가 오랜 공직생활과 정치활동을 통해 능력을 검증받은 전문가로서 광주시민의 지갑을 지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며 지지 이유를 표명했다.

이어 “분열의 정치, ‘뒤틀린 정치’가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 여망을 가로막고 박근

해 정권을 돕고 나서고 있다”면서 “자신이 몸 담았던 당에서 온갖 지위와 명예를 누리던 사람이 이제 와서 당을 비난하고 야권을 분열시키고 있다”며 전정배 후보를 겨냥했다.

앞서 지난달 29일에는 광주·전남 지역 대학교수 51명이 새정치민주연합 조영택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지금도 민주개혁 세력이 하나가 돼 박근혜 정권에 경종을 울리고 정권교체의 희망의 닻을 올려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면서 “조 후보는 정부와 국회에서 충분히 검증된 정책 전문가이자, 광주발전과 시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광주사람이다”면서 지지선언 배경을 설명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서구 을 승리위해 강운태·이용섭 복당 시켜야”

### 새정치 선거기획단, 지도부에 건의

광주 서구를 보궐선거가 접전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새정치민주연합 일각에서 선거 승리를 위해 강운태 전 광주시장과 이용섭 전 국회의원의 복당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일 당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당 선거기획단은 광주 서구를 승리를 위해 강 전 시장과 이 전 의원을 복당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지도부에 제출했다. 또 한 최고위원도 최근 비공개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전 의

원이 전정배 후보를 도울 경우 선거 판세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복당을 검토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전문가이자 경제정책통이었던 이전 의원의 경우 문재인 대표가 추진 중인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의 조세개편위원회를 맡기는 방안도 당 내부에서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광주시장 선거에 도전한 바 있어 이번 보궐선거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선거기획단은 분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해 6·4지방선거 광구광역

시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안철수 당시 공동대표 측 인물이었던 윤장현 시장에 대한 전략공천에 반발해 탈당했다.

하지만 이들의 복당 문제는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의 반발이 거센데다 당의 방침에 불복해 탈당했던 인사를 1년도 채 안 돼서 복당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최고위원들의 지적에 따라 일단 유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들의 복당이 제기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광주지역의 한 의원은 “강 전 시장과 이 전 의원의 복당 문제는 광주지역 국회의원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며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지역 현안 힘써 주세요”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이낙연 전남지사 등 광주·전남지역 의원들이 2일 국회에서 열린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박해자·김동철, 새누리당 주영순,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김성곤·주승용, 이낙연 전남지사,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박주선, 새누리당 이정현, 새정치민주연합 이계호·신정훈 의원. <전남도 제공>

# 광주시의회 “DJ센터 사장 내정자 부적합” 의견

###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윤장현 시장 결정에 관심

광주시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첫 대상인 유재대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 내정자에 대해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사장 업무수행능력에 대해 ‘부적합’ 의견을 제시했다.

광주시의회 인사특위는 2일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윤 내

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특위는 보고서에서 “윤 내정자가 도덕성이나 윤리성, 28년간 무역협회 경력은 장점이지만, 전문성과 비전제시, 업무 이해도, 청문회 준비 부족 등 전반적인 사장 업무수행능력에 대해 부적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인사특위는 3일 최종 인사청문회 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서 보고한 뒤 광주시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윤장현 광주시장의 최종 결정

이 주목을 받고 있다.

앞서 인사특위 위원들은 지난달 30일 열린 윤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 결과 전문성 부족과 준비 부족, 컨벤션센터 업무에 대한 이해 부족, 무성취한 답변, 잦은 주소지 변경에 대한 명확한 답변 미비 등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광주여성재단 대표이사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15일 실시할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4·29 광주 서구 을 국회의원 보선 예비후보 릴레이 인터뷰 무소속 조남일

## “민주주의 파괴한 현정부 심판”

“이번 선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선거다. 사상초유의 정당해산으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민주주의를 파괴한 현 정부에 대한 심판이 되어야 한다.”

4월 29일 치러지는 광주 서구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무소속 조남일 예비후보는 2일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민주주의 부활과 정권교체 변화의 시작을 위한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후보는 이어 “정부의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대해 제동을 걸지 못하는 무능한 야당에 대한 심판도 이뤄져야 한다”면서 “광주, 특히 서구민들의 정치적 판단 수준이 어느 지역보다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략적 선택을 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는 분권과 균형발전

이 기본이 되어야 하는데, 현 정부는 수 도권 규제 완화 재벌 챙기기 등 기득권 챙기기에 여념이 없고, 이 때문에

지역발전은 요원하다”면서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 경제 민주주의를 포함한 헌법적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조 후보는 이를 위해 “선거기간 동안 박근혜 정권의 반 민주성을 부각시키고 이에 대해 제대로 된 정치를 펼수 있는 세력과 인물을 뽑아달라고 유권자

들에게 호소할 계획”이라며 “특히 서구에서 태어나 50년동안 단 한번도 서구를 떠나지 않고 살아온 만큼 많은 지역민들이 지지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 서구 광천동 출생(1963) ▲동신고 졸업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광주지부장 ▲5대 서구의원 ▲민주노동당 광주전남본부장 ▲광주진보정치포럼 공동대표(현) <끝>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 5대 핵심 공약

- ▲ 중앙공원 국가공원화
- ▲ 금호동에 고등학교 유치
- ▲ 풍암동·매월동 상설 혼잡지역 지도도 신설
- ▲ 서구 2노인 복지회관 건립
- ▲ 기초 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

의료광고심의필 제140611-중-59153호

# 축 건물 천층 안과병원운영

6/7F 라식센터

4/5F 수술센터

2/3F 외래진료

- 2년 연속 대한민국 의료서비스 대상
- 라식수술실 4곳 및 레이저 7대 보유
- 안구건조증 거의 없는 스마일 수술 시행
- '레인드롭' 노안시력 교정술 시행

**백내장 4無 수술**  
無통증·無출혈·無봉합·無입원 수술가능  
백내장+노안+난시를 단한번의 수술로 해결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노모양빌딩을 찾으세요

▲ 운암동 방면  
◀ 상무지구 방면

**밝은광주안과**

의료광고심의필 제150204-중-68156호

# 아이소망

시엘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외수정시술 | 산부인과 복강경수술 | 습관성 유산 · 종합건강검진센터

www.clwhivf.com | www.시엘병원.com ☎(062)368-1700